

건강 칼럼

난임·불임 원인 '난소낭종'이란?

난소는 여성의 골반 내 자궁 양측에 위치하며 난자를 생산하고 여성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생식기관이다. 난소에는 주머니 모양의 세포인 난포가 있는데, 난자의 성장을 돕는 난포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난포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배란 과정의 문제가 발생하면 양성종양인 난종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난종을 기능성 난소낭종이라고 부르며 난소에 발생하는 종양들 중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이러한 기능성 난소낭종은 대부분이 자각 증상이 없어 병변의 발생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다만 난종의 크기가 커질 경우 복부팽만, 소화불량, 복부 압박감, 대소변 시 불편함, 질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내에 호르몬이 조절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적관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난종이 사라지



최 동 석
최상신부인과 대표원장

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찰되거나 형태나 크기 등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난소낭종은 양성 종양이지만 방치할 경우 난소의 정상 조직을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난임 문제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대다수가 난소낭종 진단을 받기 때문에 난소낭종이 의심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 바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난소낭종은 아직까지 완치가 가능한 약물적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재발을 억제하거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수술적 방법 혹은 비수술적 방법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수술적 방법에는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 로봇수술 등이 있다. 수술적 방법 중 하나인 복강경은 난소낭종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병변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바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능의 저하를 불러오기 때문에 특히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난소낭종의 치료를 위해 수술적 방법을 선택할 경우 난소 기능의 30~40%가 소실될 가능성이 있어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비침습적 치료인 경화술을 통해 난소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다.

경화술은 난소 및 나팔관, 복강 내 난종, 자궁내막종 등을 치료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질 인공벽을 통해 시행하기 때문에 신체 외부에는 상처나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난소낭종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환을 미리 확인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지난 6일, 시멘트와 향단 운송량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유와 철강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전국 15곳에서 화물연대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와 향단 운송량은 눈에 띄게 회복하는 분위기다. 시멘트는 하루 동안 15만7,000톤이 운송돼 평상시의 84%까지 회복됐고, 벌크시멘트 레일러, BCT 운송량수도 6천 회로 평상시의 80%를 웃돌았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절반 넘게 회복됐다.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62%까지 올라왔다. 반면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는 늘고 있다.

품질 주유소는 전국 96곳으로, 서울이 36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20곳, 강원 12곳 순이다. 월경도 여전히 평상시의 40~50%의 물량만 출하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시멘트 운송 기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명령에 대비해 철강과 정유 업계 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투쟁 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강서분부에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파업 과정에서 운송 방해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벌금과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고물가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온통 경제 문제가 국민들을 옥죄고 있다. 정부는 전 정부 죽이기 등에 국정을 지나치게 소진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국정 의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한국축구대표팀의 분투

월드컵 첫 원정 8강에 도전했던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에 패하며 꿈꿨던 2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축구 대표팀은 모든 걸 쏟아부으며 후회 없이 맞섰지만, 피파랭킹 1위 브라질은 너무나도 강했다.

세계 최강의 벽은 역시 높았다. 대표팀은 경기 시작 7분 만에 브라질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상대 개인기에 왼쪽 측면이 한순간에 뚫렸고, 비니시우스가 침착하게 골로 마무리했다.

전열을 정비할 틈도 없이 대표팀은 5분도 안 돼 네이마르에게 페널티킥 골까지 내줬다. 황희찬이 총알 같은 슈팅으로 반격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흥이 오른 브라질 삼바축구의 공격력은 더욱 거세졌다.

2대 1 페이스플레이 한 번에 히샤를리송에게 세 번째 골까지 허용했다. 벤투호는 추격 골을 위해 빌드업 축구를 맞섰지만, 역습 한방에 파케타에게 실점하며 전반을 4대 0 큰 점수차로 뒤진 채 마쳤다.

대표팀은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이 날카로운 감아차기 슈팅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알리송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후반 31분 교체 투입된 백승호가 그림 같은 하프 발리슛으로 마침내 브라질의 골망을 가르며 역패는 모면했다.

원정 첫 8강 진출이라는 또 한번의 기적을 이루기엔 벽이 너무나도 높았다. 대표팀은 4년 뒤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새로운 기적을 기약하며 카타르에서의 도전을 마무리했다.

국가 대표 선수들은 "축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자랑스럽게 경기를 할 수 있는 대회가 되었던 것 같다."며 그 동안 카타르의 감동을 전했다.

후회 없이 부딪혔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강했다. 여정은 여기서 멈추게 됐지만, 지난 2주간의 꿈꿨던 시간은 진한 감동으로 남겨됐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러시아 진지 향해 불 뿜는 박격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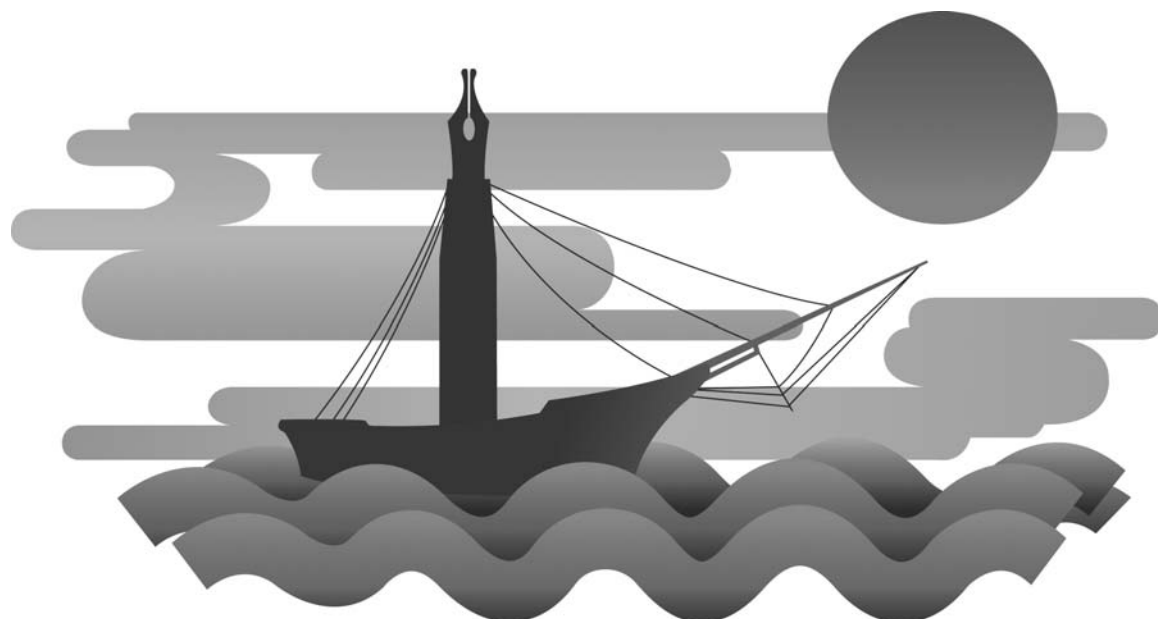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6일(현지시간) 도네츠크주 비호무트 인근 전선에서 러시아 진지를 향해 프랑스의 MO-120-RT-61, 120mm 견인 박격포를 쏘고 있다.

"독재 말고 민주주의" 팻말 든 티베트 운동가



7일(현지시간) 인도 디람살라에서 한 명명 티베트 운동가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와 연대해 거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